

# 경북도, 산림산업 전문가 ‘한자리’ “임업, 6차산업으로 새롭게 육성”

경북도 ‘새바람 행복버스 간담회’  
간벌나무 정리, 산양삼 인증 등  
민생 애로사항 건의·답변 진행

경상북도는 2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세 번째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양군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오도창 영양군수, 조립임도건설병해충방제산나물재배 등 산림산업 분야 대표 및 기관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산림산업 기(氣) 확실히 살리자’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 중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여 진행한 ‘민생 애로사항 건의 및 답변의 시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산림산업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애로사항 건의가 이어졌고, 도지사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격의 없이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해결했다.

특히, 임야에서 간벌사업 후 벌목한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 통행

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벌된 나무들을 톱밥으로 만들어 축산농가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운영하여 간벌한 나무들을 정리하고, 수집한 간벌목은 취약계층 난방용 톱감으로 나누어 주거나 톱밥으로 만들어 축산농가 등에 보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산양삼은 산림청에서 파종부터 수확, 판매 등 전 과정을 점검하여 인증하는데 반해, 타 산지작물에는 발작물과 구분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도내에서 생산한 모든 청정임산물의 국가통합브랜드화(K-Forest Food)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산지에서 아무리 작물을 수확해도 임도 및 작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작물을 운반할 수가 없어 생산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므로 임도설치를 확대해야 된다는 건의에 대해, 산림업 종사자들이 임도문제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임도 설치 사업비를 증액하고 산주

동의를 구하여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산림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산림산업은 생태관광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핵심이므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림서비스 산업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청, 군청,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원팀으로 산림산업 발전 위한 분야별, 지역별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임업을 6차 산업으로 새롭게 육성하고 산림산업 간의 융복합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후 영양군 일월면의 농업회사법인인 영양 그린푸드(주)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이 지사는 원료 정선, 세척, 발효살균 및 저온숙성 등을 통해 산야초 발효음료, 수출용 상온김치 등을 생산하는 공장 시설을 견학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선적 등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metroseoul.co.kr



예천군이 제49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개최한다.

## 예천군, 오늘 KBS배 육상경기대회 개최

선수·임원 등 4000여명 참가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일반부 육상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제49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연맹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4,000여명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확산 등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자하둑 100m 여제인 정혜림(광주광역시청)선수가 도쿄올림픽 기준기록 통과에 도전하고 한국 육상 차세대 에이스 박원진(설악고), 비웨사(안산 원곡고), 손지원(경기체고)이 출전해 한국신기록에 도전한다.

이외에도 국가대표 육상선수들이 대

거 출전할 예정이며 3일부터 6일까지 네이비스포츠와 유튜브 STN SPORTS를 통해 경기를 생중계한다.

군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며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출입구를 설치해 선수와 임원 이외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동검체소, 자가격리시설 등을 갖춰 코로나19 유증상자 확진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군에서 역대 최대 규모 육상인들이 참여하는 대회인 만큼 방역에 더욱 신경 써 코로나19 제로(Zero) 대회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경기를 운영해 ‘2022 예천아시아 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지인 예천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예천(경북)=김귀열 기자

## 경북교육청, 교직원·학생 PCR 선제검사

경산·구미지역 학교·기숙사 등 대상  
의료인 3인 1조 구성 학교 순회검사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역사회 및 교내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이동검체 PCR 선제검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PCR 선제검사는 지역민 확진자와 학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경산, 구미지역의 학교와 확진자 발생 인근 학교, 전국모집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우선검사를 한다.

이동검체 PCR 검사는 퇴직 보건교사로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의료인 3인 1조로 팀을 구성해 학교를 순회하며, 무증상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의 검체를 채취해 수탁기관에 보냄으로써 선별진료소를 찾는 불편함을 없애고, 익숙한 공간인 학교현장을 찾아가서 검사를 한다.

한편, 이동식 검체 PCR 검사가 시행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 이동검체 PCR 선제검사 실시한다.

된 이후에도 의심증상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에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교직원 등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기존 검사도 유지된다.

찾아가는 코로나19 이동검체 PCR 검사 운영은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해 전면 확대 여부

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면등교 확대를 위해 학교 방역인력을 신청한 도내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100% 배치(2788명)했다”며 “이번 코로나19 이동식 검체 PCR 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PCR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귀열 기자

## 광주 옛 505보안부대 인근 지하병커 발견

일제시절 군 지휘소기능 등 추정

광주 옛 505보안부대(기무대) 인근에서 일제시절 군사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병커가 발견됐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시민모임)은 5·18역사공원으로 지정된 옛 505보안부대 인근에서 일제 지하 병커가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발견된 지하병커는 입구가 돌출된 형태여서 발견이 쉬웠지만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지하병커는 입구가 좁고 토사에 가려져 있어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또 병커 내부는 미로처럼 연결돼 있고 성인 20~30여명 이상이 운집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커 내부로 전기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이 남아있어 일제시절 군 지휘소 기능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014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맞은편에서 발견된 지하동굴 3개와는 1km정도 떨어져 있어 이번 발견된 병커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김태수 기자

## 여주시, 도원사거리 일원 하수도 정비

침수피해 예방 일한 내달 실시

여주시가바닷물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칠 시 상습침수가 잦은 도원사거리 일원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원사거리 일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으로 학동, 안산동, 선원동 일원에 2023년까지 국비 149억 등 총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해 우수관 확장과 펌프장 등을 설치한다.

현재 도원사거리에는 1만1,400톤 용

량의 지하저류조가 있으나 강제 배수를 할 수가 없어 바닷물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칠 때면 침수피해가 발생해왔다.

시는 분당 300㎥를 배수할 수 있는 빗물펌프장과 집중호우 시 물을 가둬둘 수 있는 유수지 3,000㎥를 확보하고, 4.1km에 이르는 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전라남도 설치인가 등 잔여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이달 사업을 발주해 내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수(전남)=김용환 기자 jijacecom@

## 영양 자작나무 숲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

경북도, 유공자 표창·걷기체험 등 진행

경상북도는 2일 대한민국 대표 청정지역인 영양군 자작나무숲 일원에서 이철우 도지사, 오도창 영양군수,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종열 도의원, 장영호 군의회 의장, 군의원, 환경관련 단체, 기업인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행

사를 개최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이라는 올해 환경의 날 주제에 맞게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허파 역할과 영양의 새로운 힐링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자작나무 숲을 행사장소로 선정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영양군 온누리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자연환경 보전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탄소중립 실천선언 및 퍼포먼스, 자작나무 숲길 걷기 체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학생, 주민, 기업체 등 각계각층 도민대표 4인은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선언하였으며, 퍼포먼스를 통해 주요 내빈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을 외치며 지구모형을 회전시키면서 병든 지구를 살려내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